

프랑스

# 컨버전스 프로그램

[2024 스웨덴 컨버전스 프로그램]

2024.05.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본 보고서는 스웨덴 정부가 발표(2024.4.25.)한  
2024년 스웨덴 컨버전스 프로그램(*Sveriges konvergensprogram 2024*) 보고서를  
요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연구책임자** | 김빛마로 재정지출분석센터장  
배진수 재정제도분석팀장

**공동연구원** | 박지혜 선임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요 약 SUMMARY

### » 스웨덴 정부는 2024년 4월 25일에 2024년 스웨덴 컨버전스 프로그램(Sveriges konvergensprogram 2024)<sup>1)</sup>보고서를 발표

※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라 유로지역 EU 회원국은 “안정화 프로그램(Stability Programmes)”을 제출하고, 비유로지역 회원국은 통화 정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컨버전스 프로그램(Convergence Programmes)”을 제출

- (경제전망) 스웨덴의 GDP 성장률은 2024년 0.7%로 저조하게 전망되고, 2025년에는 2.5%로 약간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경기 침체에 있는 것으로 보임
  - 낮은 노동수요로 인하여 노동시장은 계속 악화 될 전망이며, 2023년 크게 하락한 물가 상승률은 2024년에 중앙은행 목표치(2%)를 달성하며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재정전망) 스웨덴의 공공재정은 2025년까지 재정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고용 감소로 인하여 세수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수지에 부담으로 작용
  - 구조적 재정수지는 2024년까지 일시적으로 적자를 보이지만 2025년부터 점차 나아질 것으로 나타남
  - GDP 대비 총채무는 2022년과 2023년에 감소하였으나 2024년과 2025년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2026년과 2027년에는 30% 이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
- (재정 목표 및 정책) 스웨덴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 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른 정책을 마련함
  -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맞서 가계와 복지를 지원하고, 노동 우선 원칙을 다시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로 개혁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움
  - 춘계재정정책법안에서 경기 침체를 극복하며 복지를 강화하고, 법 집행 및 치안을 강화하여 범죄를 퇴치하며, 국방 및 안보 위기에 대비하는 분야에 다양한 재정정책을 제시

1) 스웨덴 재무부, *Sveriges konvergensprogram 2024*, 2024.4.25.,  
<https://www.regeringen.se/rappporter/2024/04/sveriges-konvergensprogram-2024/>, 검색일자: 2024.5.7.

# 1 | 개요

- » **스웨덴의 경제는 낮은 GDP 성장률과 실업률의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함**

  - 수년간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비용의 증가와 금리의 인상은 성장을 저해하고, 실업률을 높이며, 가계와 기업은 물론 복지 정책에도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
- » **정부는 인플레이션 퇴치를 지금까지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음**

  - 긴축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 책임 있는 임금 협상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하락하였고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2024년에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인근 지역의 전쟁 및 지정학적 불안은 에너지 및 운송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코로나 환율의 불안정한 움직임도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작용
- » **물가상승률이 하락하고, 경기 침체의 영향이 점점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경제 정책의 주요 과제는 더 부유한 스웨덴이 되기 위한 회복, 더 큰 성장, 더 나은 복지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
- » **또한 스웨덴은 주변국의 안보 상황과 국내의 심각한 조직범죄 문제로 인하여 국방과 사법의 재원을 확충하여 더 안전한 나라가 될 필요**

  - 안보는 복지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으며 탄탄한 정부 재정과 같은 스웨덴 경제의 근본적인 장점을 고려할 때 스웨덴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춤
  -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성장을 다시 회복하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을 창출해야 함
- »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됨에 따라 정부는 가계의 구매력 강화, 실업률 감소, 성장과 투자 증대를 목표로 하는 개혁을 통하여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

  - 동시에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기후 전환을 가능하게 하여 더 부유하고 안전한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토대를 마련

## 2 | 경제 전망

- » 스웨덴 경제는 2023년 2분기부터 3분기 연속 GDP가 감소하는 등 경기 침체에 빠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이는 내수 부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많은 가구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하여 2022년과 2023년 구매력이 크게 약화 됨(참고 1)
- » 스웨덴의 GDP 성장률은 2024년에도 0.7%로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2025년에는 2.5%로 약간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경기 침체에 있는 것으로 보임

  - 2024년에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가계 부문의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 동시에 고용은 감소하고 가계의 이자 비용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구매력은 약세를 보이고 가계 소비가 더디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금리 인하의 여지가 생겨 가계와 기업의 이자 비용이 낮아지면 가계 소비가 회복되고, 주택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더불어 2025년에는 세계 경제 전망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스웨덴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 2023년 하반기 동안 노동시장이 악화되었고, 2024년에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

  - 2023년 경제수요 약화로 인하여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
  - 2024년에는 더욱 악화된 모습으로 해고와 파산이 증가하여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
    - 낮은 노동수요로 인하여 고용이 소폭 감소하고(2024년 68.9%), 실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2024년 8.3%), 2025년에도 노동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
- » 2023년에 물가상승률(CPI 기준)이 6.0%로 뚜렷하게 하락하였고, 2024년 초에는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나 2024년 목표치(2.0%)를 달성할 것으로 보임

  - 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특히 2022년 겨울 이후 전기 요금이 하락하였고, 연료 가격도 세금 감면과 온실가스 감축 의무 완화에 힘입어 하락
    - 그러나 서비스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경제수요 약세와 생산자 물가 하락은 인플레이션을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률을 낮추고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웨덴 중앙은행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2022년과 2023년에 정책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sup>2)</sup>

-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계속 근접한다면 2024년에 정책금리를 낮출 수 있음
- 중앙은행 정책금리는 2024년 상반기에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4년 하반기와 2025년에 점진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

〈 표 1 〉 2023~2027 주요 경제 지표 전망

(단위: 연간 백분율 변화)

	2023	2024	2025	2026	2027
GDP, 고정 가격	-0.2	0.7	2.5	3.2	2.4
GDP, 달러 조정	0.0	0.7	2.8	3.0	2.2
GDP, gap <sup>1)</sup>	-1.2	-2.3	-1.4	-0.3	0.0
GDP, productivity <sup>2)3)</sup>	-1.5	0.6	1.8	1.8	1.3
근무 시간 <sup>3)</sup>	1.8	-0.1	0.9	1.2	0.9
고용, 15-74세	1.4	-0.4	0.7	1.3	0.9
고용률, 15-74세 <sup>4)</sup>	69.4	68.9	69.0	69.6	69.8
실업, 15-74세 <sup>5)</sup>	7.7	8.3	8.4	7.8	7.6
KL <sup>6)</sup> 에 따른 시간당 임금	3.8	3.7	3.6	3.7	3.7
CPI	8.5	3.1	0.8	1.6	2.1
CPIF	6.0	2.1	1.7	2.0	2.0
정책금리 <sup>7)</sup>	3.46	3.85	2.71	2.25	2.25
전 세계 GDP, KIX 가중치 <sup>8)</sup>	1.4	1.5	1.9	2.0	2.1

주: 2023년은 결과, 2024~2027년은 전망치  
 주1): 잠재 GDP 대비 실질GDP와 잠재GDP의 차이 백분율 (잠재 GDP는 추정)  
 주2): 근무 시간당 기본 가격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가치 부가  
 주3): 국민계정에 따라 달러 조정  
 주4): 인구 대비  
 주5): 노동인구 대비  
 주6): 순환임금통계(KL)에 따른 명목임금 추이. 2023년은 전망치.  
 주7): 연평균 백분율  
 주8): 스웨덴 대외 무역에서 각 국가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KIX 가중치와 결합된 GDP  
 출처: 스웨덴 재무부, *Sveriges konvergensprogram 2024*, Tabell 1, p.15, 2024.4.25.

» 스웨덴 및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에서 크게 하락했으며 2024년에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이러한 상황은 다양한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음

-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 활동의 예상보다 약한 발전은 스웨덴 노동시장의 약화, 실업률 증가, 더 깊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
- 지정학적 긴장, 급박하고 동시적인 긴축 통화 정책의 효과, 많은 국가의 재정정책 방향 등의

2) 2023년 2월 15일 3%로 인상, 2023년 5월 3일 3.5%로 인상, 2023년 7월 5일 3.75%로 인상, 2023년 9월 27일 4%로 인상, 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2024년 2월호』 참고

외부 세계의 경제 발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큼

- 높은 금리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노출 시켜 세계 경제에 광범위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침
  - 스웨덴 경제에도 마찬가지로 가계와 기업의 높은 금리 민감도는 경제 발전과 금융 안정성에 모두 취약한 요인으로 작용
- 고금리와 연결하여 각국의 재정 지속가능성도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스웨덴 정부의 경우 국가 재정이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위협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그 외에도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사이버 공격과 사보타주 위협,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 등도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참고 1 〉 가계 구매력 약화

» 고물가는 가계의 구매력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평균 임금근로자의 경우 2021년 말부터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구매력이 크게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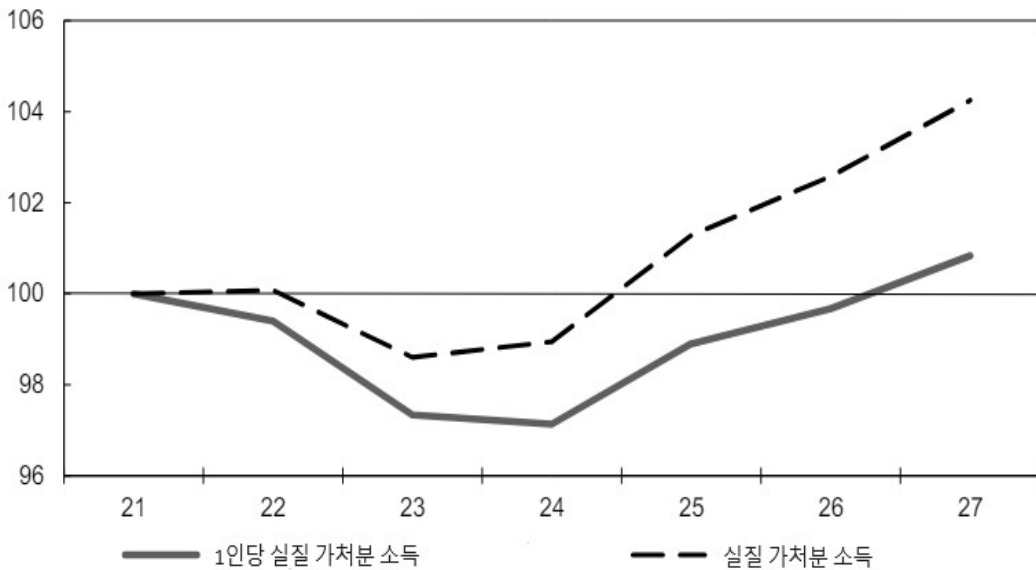
- 임금이 물가만큼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10년치 이상의 실질 임금이 손실
- 앞으로 평균 실질 임금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1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

» 가계의 총구매력은 개인 임금근로자만큼 큰 영향을 받지 않음

- 이는 부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에서 취업으로 전환하여 경제 내 총 임금이 증가했지만 개인 임금근로자의 구매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
- 질병수당, 육아수당과 같은 물가 연동형 복지 이전금(price-indexed social transfers)이 총구매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

[ 그림 1 ]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 및 가계 실질 가처분 소득

(2021=100)



출처: 스웨덴 재무부, *Sveriges konvergensprogram 2024*, Diagram 1, p.7, 2024.4.25

» 구매력은 소득 분포에 따른 가구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르게 영향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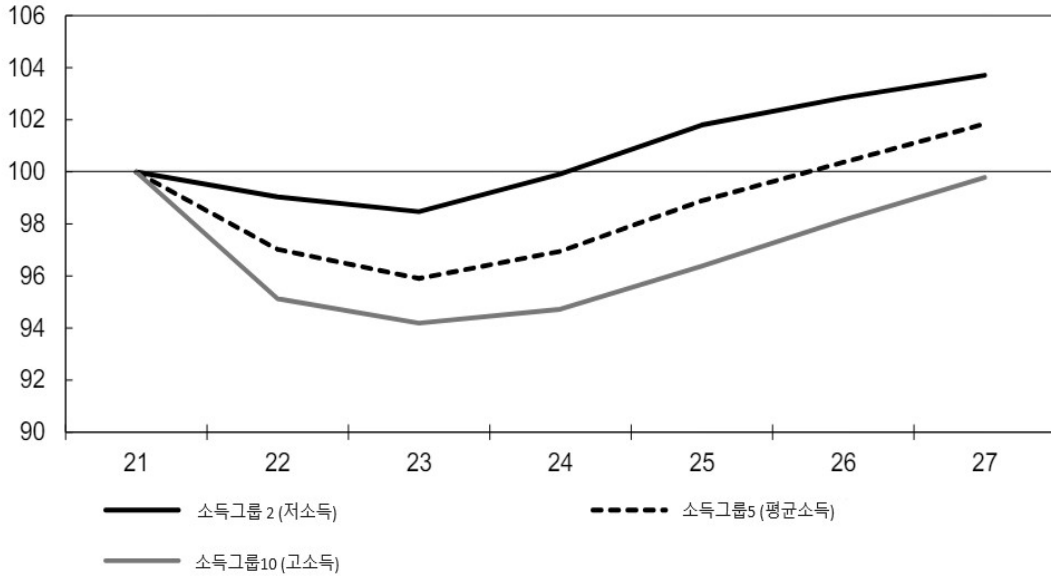
- 저소득층 가구가 고소득층 가구보다 구매력의 회복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
  - 평균 소득을 가진 가구는 2026년 이후에야 구매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 가계의 다양한 장비구니, 즉 한 해 동안 가구가 구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과

부채비율(loan to value ratio)의 차이로 인하여 구매력이 영향을 받음

- 예를 들어 장바구니에 식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는 평균 가구에 비해 구매력이 더 크게 감소

[ 그림 2 ] 소득그룹별 가계 금융의 실제 전망

(202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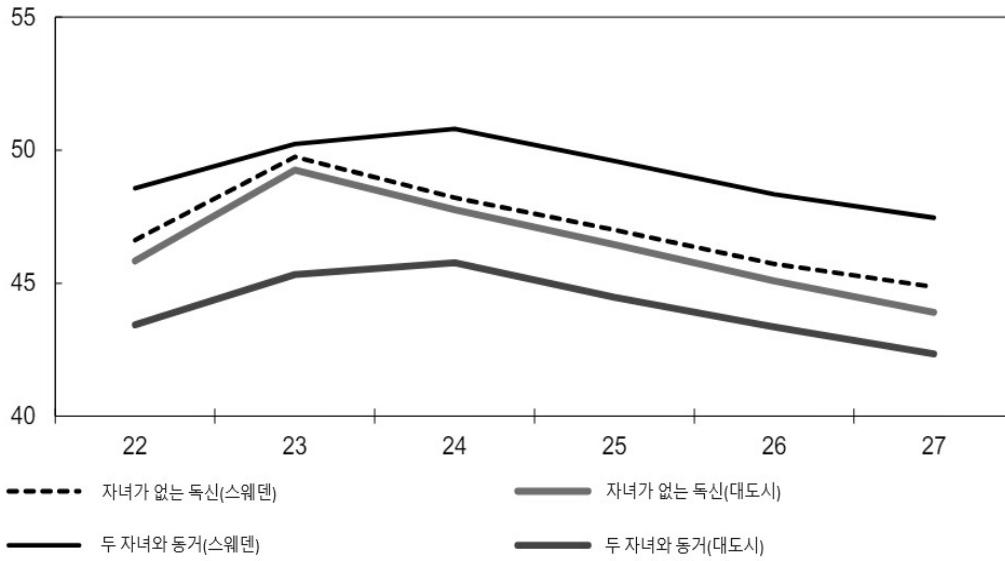
출처: 스웨덴 재무부, *Sveriges konvergensprogram 2024*, Diagram 2, p.8, 2024.4.25

» 대부분의 가구는 2022년과 2023년 구매력이 약화되었으나 2024, 25년부터 점차 개선될 전망

- 자녀가 없는 독신 가구의 경우, 2024년에는 구매력이 개선되고, 2025년에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소득 증가와 물가 및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지출의 증가세가 둔화
- 자녀가 2명인 가구의 경우 2024년에는 구매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 이는 자녀가 있는 독신 가구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도 적용
  - 2025년에는 이자 비용이 감소하고 식료품 가격의 상승폭이 줄어들어 가정이 있는 가구의 구매력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 그림 3 ] 일반 가계 기준, 소득 대비 지출

(단위: 소득 대비 지출)



출처: 스웨덴 재무부, *Sveriges konvergensprogram 2024*, Diagram 3, p.9, 2024.4.25

» 2024년 구매력은 낮은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고용 감소가 상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총구매력은 실질 임금 및 고용 증가, 금리 인하의 효과로 인하여 2025년, 개인의 구매력은 2027년에야 회복될 것으로 전망

### 3 | 재정 전망

» 스웨덴의 공공 재정은 2025년까지 재정적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고용 감소로 인하여 세수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정부 재정수지에 부담으로 작용
  - 고물가의 지연 효과로 인하여 지출이 증가하고, 국방 분야에 대한 투자도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
- 구조적 재정수지는 2024년까지 일시적으로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구조적 재정수지는 2025년부터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임

» GDP 대비 총채무는 2022년과 2023년에 감소하였으나 2024년과 2025년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2026년과 2027년에는 30% 이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

- 중앙정부가 외환 대출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로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스웨덴 국채청 (Swedish National Debt Office)의 연간 차입 수요가 감소

〈 표 2 〉 2023~2027 공공부문 주요 재정 지표 전망

(단위: 10억 크로나)

	2023	2024	2025	2026	2027
일반정부 재정수지	-40	-81	-18	51	125
GDP 대비	-0.6	-1.2	-0.3	0.7	1.7
중앙정부	-0.1	-1.0	-0.3	0.5	1.4
퇴직연금제도	0.2	0.5	0.6	0.6	0.7
지방자치단체	-0.8	-0.8	-0.5	-0.4	-0.4
구조적 재정수지	0.1	-0.2	0.7	1.2	2.0
연결 총채무	1966	2067	2128	2130	2074
GDP 대비	31.2	31.8	31.5	30.0	28.0

주: 2023년은 결과, 2024~2027년은 전망치  
 출처: 스웨덴 재무부, *Sveriges konvergensprogram 2024*, Table 2, p.17, 2024.4.25

» 재정정책 프레임워크(The fiscal policy framework)<sup>3)</sup>

3) 스웨덴의 재정정책 프레임워크는 재정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투명하도록 보장하는 제도. 특정 원칙은 법으로 규제되고, 다른 원칙은 1990년대 이후 정해진 발전된 관행을 기반으로 함. 재정정책 프레임워크는 재정정책에 대한 여러 목표와 원칙, 그리고 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구성됨. 예산 정책 목표(흑자 목표, 채무 닷, 지출 한도, 지방 균형 예산), 규정된(disciplined) 중앙정부 예산 과정, 재정정책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 개방성과 명확성 등의 요소들로 구성됨(스웨덴 정부, "About the Swedish fiscal policy framework."

- 2024년 구조적 재정수지는 흑자 목표(surplus target)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2025년에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임
  - 2024년의 차이(deviation)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으로 높아진 연금 비용 때문이며 정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2025년에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것은 균형 잡힌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
  -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실업과 성장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재조정
  - 재정정책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재정정책의 방향과 위치(direction and position)<sup>4)</sup>를 분석하여 측정
  - 두 지표 모두 2024년 재정정책이 다소 확장적인 것으로 나타냄
- 채무 닻(debt anchor)는 일반정부 통합채무에 대한 기준으로, GDP의 35%로 설정되어 있음
  - 매년 정부는 춘계재정정책법안에서 총채무의 추이를 제출해야 하고, 채무비율이 채무 닻에서 GDP의 5% 이상 벗어나는 경우, 의회에 차이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설명해야 함
  - 2024년 기준 총채무는 채무 닻의 기준인 GDP 대비 35%에 부합하는 것으로 전망
  - 총채무는 2023~2025년에 GDP의 31~32%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지출 한도란 향후 3년 동안의 중앙정부 예산 지출의 상한선을 의미하며, 결정된 지출 한도는 정부가 바뀌거나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 정부가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의회가 결정을 내림
  - 2024년 춘계재정정책법안에서 2027년 지출 한도에 대한 제안이 처음 정해졌으며, 정부는 2027년 지출한도가 전년 대비 6,900억 크로나 증가한 1조9,350억 크로나에 달할 것으로 평가
  - 잠재 GDP 대비 지출 상한선의 수준은 2027년 26.0%로 2026년 대비 약간 낮음

〈 표 3 〉 2024~2027 지출 한도 수준

(단위: 10억 크로나)

	2024	2025	2026	2027
의회가 결정한 지출 상한선	1,747	1,827	1,866	-
정부가 제안한 지출 상한선	-	-	-	1,935
지출 상한선, 잠재 GDP 대비	26.6	26.7	26.1	26.0
지출 상한선, GDP 대비	26.9	27.1	26.3	26.1
상한선 제한 지출	1,699	1,730	1,754	1,766
예산 마진	48	97	112	167

출처: 스웨덴 재무부, *Sveriges konvergensprogram 2024*, Table 3, p.18, 2024.4.25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of-sweden/ministry-of-finance/central-government-budget/the-fiscal-policy-framework/>, 검색일자: 2024.5.23.)

4) 재정정책의 방향은 구조적 재정수지의 변화로 측정되며, 전년 대비 수요에 대한 재정정책의 효과로 나타내고, 재정정책의 위치는 재정 흑자 목표에 대한 구조적 재정수지의 수준을 연관시켜 측정하며, 평년 대비 재정정책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 4 | 재정 목표

### » 스웨덴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목표를 세움

- 첫째, 인플레이션에 맞서고 가계와 복지를 지원
  -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동시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재정 정책을 추진
  - 물가상승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보육, 교육, 보건, 복지 등의 핵심 활동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결정
  - 최근 인플레이션과의 투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는 모든 사람의 구매력 회복을 목표로 하여 가계의 구매력 회복을 지원하는 것
- 둘째, 노동 우선 원칙을 다시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
  -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하여 2024년 실업자는 4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기존에 노동시장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 구직자들이 더 나은 역량을 갖추 수 있는 직업 훈련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동시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하며, 특히 일과 자립의 원동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 근로소득세의 추가 감면, 실업보험의 개정, 다자녀 수당 검토, 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일자리 지원에 투자할 계획
- 셋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 개혁
  -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성장과 우수한 생산성 향상은 스웨덴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
  - 그러나 최근 1인당 GDP 성장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제는 생산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성장 구조를 개선시키는 개혁을 통해 경제 발전에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함
  - 정부 성장의 의제는 인프라, 기후변화, 연구, 에너지 생산, 규제 간소화 및 기술 제공에 대한 투자에 초점
    - ◆ 무엇보다도 우수성, 국제화 및 혁신에 중점을 둔 연구 및 혁신을 제안
    - ◆ 경제 생산성 강화를 위한 장애물과 기회를 파악하도록 하는 생산성 위원회를 임명

## 5 | 주요 재정 정책

### » 스웨덴 정부는 2024년 춘계재정정책법안과 함께 2024년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 이 법안에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며 복지를 강화하고, 법 집행 및 치안을 강화하여 범죄를 퇴치하며, 국방 및 안보 위기에 대비하는 등의 분야에 대한 재정 정책이 제시되어 있음

### » 첫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복지를 강화

-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 비용과 연금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비용 압박이 커짐
  - 지방정부 의료 서비스 보조를 위하여 추경예산안에서 60억크로나를 추가 지원할 계획
  - 지출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정부의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통해 5억크로나를 추가 지원하고 학교 시스템을 강화
- 물가 상승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임시 추가 주택 수당을 연장하고, 실업률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일자리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구직 기회를 증가
- 실업률 증가와 기술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인 직업 교육 및 훈련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계획
- 스웨덴과 같이 지역 간 거리가 멀고 인구 밀도가 낮은 국가에선 교통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통 시스템에 투자
  - GSA 시스템<sup>5)</sup>으로 인한 항공사의 급격한 수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10억3,500만크로나 투자
  - 스테농순드(Stenungsund) 산사태에 따른 E6 도로 복구에 10억크로나 지원
  - 충전 인프라 확장하고, 교통 부문의 전기화 및 친환경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더 나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Klimatkivet에 대한 투자를 강화

### » 둘째, 법 집행 및 치안 강화

- 조직범죄는 스웨덴의 사회, 개인,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정치 및 행정에도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부는 범죄 퇴치를 위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세를 펼치고 있음
- 범죄를 강력하게 근절하기 위하여 법 집행 기관의 더 많은 자원과 도구가 제공되고, 여러

5) 승객 및 수하물의 보안 검색에 대한 일반 요금 보상 시스템(GAS: Gemensamt avgiftsutjämningsssystem för säkerhetskontroll av passagerare och deras bagage), 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2024년 2월호』 참고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

- 구금 시설과 교도소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서 교정청이 보안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재범 방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장에 도움이 될 문제를 검토
  - 보호 관찰 서비스의 수용 능력 확장을 위한 자금 마련, 새로운 교도소 부지에 대한 건축 규정 간소화, 스웨덴 법원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
- 범죄를 통해 부유해질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범죄에 가담할 유인을 줄이고 범죄 수익으로 더 잘 조직된 범죄 활동을 구축하는 것을 방지
  - 공적 자금 착취 방지, 범죄 수익 환수, 부정수급 및 복지제도 위반 근절 등

» 셋째, 국방 및 안보 위기 대비를 강화

- 스웨덴은 스웨덴의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2022년 5월 의회의 지지를 받아 NATO 회원국 가입을 신청하였고, 2024년 2월 NATO의 정회원이 되었음
- 스웨덴의 국방 지출은 NATO의 정의에 따라 2024년 GDP의 2%에 달하며, 이를 통해 군사 및 민방위에 대한 지속적인 자원을 보강할 예정
  - 크게 악화된 안보 상황에 따라 민방위 강화의 속도를 높이며 특히 전쟁 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인 의료서비스, 정보 및 사이버 보안, 교통 및 인프라, 식수 관리, 식량 준비 등을 강화하는 특별한 조치 추가
-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총 15개의 지원 패키지를 통해 정치, 경제, 인도주의,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4년 추경예산안을 통하여 최신 지원 패키지에 필요한 자금 조달